

도산서원의 공간 기호론적 해독*

이어령

1. 배산임수의 한국 주거 공간

한국인의 전통적 주거 공간의 개념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이다.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을 뒤에 등지고 냇물을 앞으로 바라보는 터에 집을 세우기를 원했다. 집의 형상이나 구조보다 그 집이 위치하게 될 터와 그 환경을 더 중시해온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건축 문화의 특성은 ‘집 없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집이나 죽은 자의 집(幽宅)이나 모두가 풍수설에 따라 터를 잡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사찰 건립 설화를 보아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절을 짓기 위해서 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좋은 터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연기에 의해서 절을 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것은 건축 문화가 건축의 개별적인 실체

* 미완고. 이 원고는 「도산서원의 공간 기호론적 해독」의 논문 가운데 서장과 '열정과 몽천' 부분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주석, 참고 문헌 등 논문의 체재를 갖추지 못한 채로 기호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중요 참고 문헌과 인용은 이상해의 『書院』(열화당, 1998)과 이우성 편 『陶山書院』(한길사, 2001), 최완기의 『한국의 서원』(대원사) 등이다.

보다도 그것과 관련된 공간(터)과의 관련에 의해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체론적 접근이 아니라 관계론에 의해서 해독될 수 있는 기호학적 접근을 요구하게 된다.

배산임수의 주거 개념을 나타내는 그 공간적 코드는 산(山)/수(水)의 물질적 대립항만이 아니라 앞/뒤, 수직/수평, 동(動)/정(靜)의 방향과 운동의 이항 코드binary code의 복합적인 체계로 형성된다. 그리고 동시에 산은 자연의 권역을 냇물은 문명의 권역을 각기 나타내고 있으며 뒤는 북향 앞은 남향을 나타내는 엄격한 공간 코드를 만들어낸다. 흔히 말하는 음양오행설을 토대로 한 그 공간 코드는 다양한 층위와 개별적인 영역 속에서 끝없이 생성 변환된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시에서는 배산임수의 공간 코드가

앞= “금모래 빛” —a 광물성, b 입자, c 황금색, d 시각적

뒤= “갈잎의 노래” —a 식물성, b 평면, c 초록색, d 청각적

등으로 앞/뒤의 이항 대립항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 광물과 식물, 입자와 평면, 황색과 녹색의 병렬 구조parallelism를 보여주고 있다.

2. 공간 텍스트로서의 서원

이러한 주거 공간의 코드화가 보다 다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서원(書院) 건축의 공간이다. 서원은 유교의 이념을 코드화한 것으로 기능성보다는 상징성을 위주로 세워진 건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이 지은 일반 사가(私家)와 달리 향촌의 사림(士林)에 의해서 세워진 건축물 이면서도 관가에서 세운 향교나 성균관과도 달라 공/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선조의 서원은 학문을 배우는 강학(講學)

공간과 선현을 모시는 제향(祭享) 공간을 복합한 것으로 성/속이 융합된 복합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서원은 조선조의 유교적 이념을 공간 기호로 나타낸 텍스트이며 그 건물의 터전과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그 전체를 위요(圍繞)하고 있는 공간 배경을 해독할 수 있는 공간 기호론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온 도산서원(陶山書院)은 서원의 공간 구조만이 아니라 서원의 그 발생과 생성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서원의 원조로 더욱 유효한 모델로 설정될 수가 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서원은 1542년 풍기(豐基)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한국에 최초로 성리학을 소개한 고려 말 안향(安珦)의 옛 집터에 사당을 짓고 안향을 제사 지내며 선비의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전 고려 시절에도 이미 문익점 같은 서원이 있어왔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송나라 때 주희(朱熹)의 백록동(白鹿洞)서원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교육 공간과 선현의 덕을 모시는 제례 공간을 함께 한 것은 백운동서원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뒤에 퇴계(退溪)가 풍기 군수로 임명되면서 그 서원을 공인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고 조정에 주청하여 사액(賜額)과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서원 문화의 정체화(定制化)가 이루어진다. 서원 문화의 주도자인 퇴계 자신이 이 백운동서원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설립한 것이 도산서원이며 뒤에 그 후학들에 의하여 완성되어 오늘의 모습으로 전하게 된다.

도산서원은 무엇보다도 퇴계의 사상과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생활 양식을 공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문자 텍스트 이상의 기호 체계를 보여준다. 그가 벼슬을 사양하고 말년의 은거처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계상(溪上)서당이었다. 그런데 그는 “계상이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 치우쳐 있어 마음을 넓히기에 알맞지 않으므로 다시 옮길 것을 꾀하여 도산 남쪽에 땅을 얻었다. 여기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어 앞으로는 강과 들을 굽어보고 깊

속하고 넓으며 바위 기슭은 초목이 무성하고 선명하며 돌우물이 달고 차서 은둔하기에 참으로 알맞은 곳이었다”고 『도산잡영(陶山雜詠)』의 머리에 붙인 기(記)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비록 관직과 번잡한 서울의 도시 생활을 버리고 향촌에 은거하기를 희망하였지마는 윗글에서 보여주는 대로 “너무 고요하고 적막한” 단헉 곳에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도산에 터를 잡은 것은 은둔하면서도 열린 곳으로 나가고, 세속적인 삶과 단절하면서도 이상적인 유학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송재소 교수의 지적대로 그렇게도 고심해서 터를 고른 계상에서 도산으로 옮기려 한 것은 단지 배움을 청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계당은 너무 좁고 주변 경관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혼자서 사색하고 수양하기에는 계당이 족하지만 많은 제자들과 강학하기에는 너무 좁고 외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의 기능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중요했으리라는 것은 퇴계가 왜 그토록 정성과 집념을 가지고 이곳에 만년의 터를 잡아 서원을 지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퇴계는 5년이나 걸려 61세의 나이로 정사(精舍)와 서당을 완성한다. 이 문량(李文樑)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堂)을 반드시 정남향으로 하는 것은 예(禮)를 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함이고, 재(齋)는 반드시 서쪽 정원을 마주 보도록 한 것은 아늑한 정취가 있도록 함이며, 그 나머지 방·부엌·곳집·대문·창 등도 모두 뜻이 있는 것이니 이 구조를 바꾸어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남쪽 변의 세 칸에 들보와 문미(門楣)의 길이를 여덟 자로 하고 북쪽 변의 네 칸의 문미는 남쪽과 동일하게 하되 들보의 길이를 일곱 자로 하는 것은, 그 뒤편의 처마를 여유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의 동쪽과 서쪽 두 칸의 들보는 여덟 자로 하고 문미는 일곱 자로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뜰이 너무 작아 말(斗)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칸은 지붕이 매우 낮고 처마가 짧다 해도 오히려 햇볕이 잘 들어올 수 있는데 뜰이

작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당과 재의 쓰임은 모두 뜰 안쪽을 향하게 하지 말고 다만 부엌 등만 밝게 하면 될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적고 있다.

건축물이 아무리 퇴락하거나 또는 증·개축되어 변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자리한 본래의 터는 바뀌지 않았다. 도산서원 역시 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다. 도산서원의 실체는 변해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공간적 의미는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서원의 물질성보다는 그 구조적 의미가 더 큰 비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공간 기호론적 해독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도산서원은 개개의 건축물을 단위로 한 것이라기보다 퇴계가 그곳에 서원을 짓기 위해 터를 설정한 것이 서원의 의미를 결정짓고 있다. 말하자면 도산서원은 도산서원이 위치한 산수의 지세와 그 위치 방향 등을 통해 퇴계의 유교적 이념과 행동의 의미를 공간을 기호화하여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글쓰기와 집짓기는 등질적인 것으로 동일한 담론discourse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서원이 위치한 도산의 경관과 집터로서의 공간 설정은 일종의 메타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은 원래 퇴계 생존 시의 은거처와 그 서당을 서원으로 꾸민 것으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향의 백운동서원과 마찬가지로 뒤에 서원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텍스트의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서원의 본래적인 기능인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을 배우는 강학(講學)의 기능과 사우(祠宇)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祭享)의 기능은 모두가 그 공간(터)이 되는 도산의 메타 텍스트에 의해서 해독되고 그 텍스트의 생성성을 밝힐 수가 있다. 기호론에 있어서의 해독과 생성이라는 양 분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도산서원의 그 터잡기와 집짓기 그리고 서당에서

서원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 기호론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조선조 유교 문화의 개념 *signifie*을 구체적인 공간의 건축물과 그 배치 등을 통한 감각물 *signifiant*을 통한 의미 작용 *signification*에 의해서 해독할 수가 있게 된다.

3. 도산서원의 생성 과정과 건물 배치와 구성

도산서당의 건립 과정을 퇴계의 제자인 금난수(琴南秀)는 도산서당 영건기사(陶山書堂 營建記事)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퇴계는 그의 나이 신일곱 살 되던 해(1557년)에 도산 남쪽에 터를 잡아 그 이듬해에 친히 건축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屋舍圖子”(건축 설계도)를 그려 승려 법련(法蓮)에게 공사를 맡겨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가 죽자 승려 정일(淨一)이 맡아 1560년에 완성시켰다. 승려 법련과 정일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 있던 용수사(龍壽寺)라는 작은 절의 승려였다.

퇴계가 왜 도산의 남쪽 외진 산기슭에 거금을 들여 농부의 밭을 사들여 자신의 거처를 옮기고 그 터에 서원을 지으려고 했는지는 퇴계 자신의 다음과 같은 글로 쉽게 읽을 수가 있다. “여기는 작은 골짜기가 있어 앞으로 산과 들을 굽어보고 있고 골짜기 속은 깊숙하고 넓으며 바위 기슭이 선명하고 돌우물이 감미로워서 머물러 살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다.” 이렇게 터를 잡은 퇴계는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며 거처할 세 칸 자리 도산서당을 맨 먼저 짓고 다음에는 제자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그자 모양의 여덟 칸 자리 농운정사(隴雲精舍)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후학들이 거처하며 독서를 하는 역락서재(亦樂書齋)를 차례로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독서를 하고 후학을 기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문도들은 도산서당 일곽을 포함하여 퇴계의 학문을 배우는 배움의 공간인 강당과 퇴계의 영혼을 모시는 제향 공간인 사당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도산서원이 완성하게 되는데 그 전체의 건물의 배치와 구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우리는 이 그림만을 가지고 보아도 도산서원의 공간 기호가 언어와 마찬가지로 가지적(可知的)인 기호 내용signifie을 가감적(可感的)인 기호 표현signife으로 나타낸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적인 차이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도산서원은 영지(靈芝)산을 조산(祖山)으로 하고 도산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그 앞에 길게 흐르는 낙천과 탁영담을 앞으로 내다보는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공간 코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퇴계의 사후에 서당이 서원으로 바뀌면서 후방과 전방의 공간 코드는 다시 후학들이 공부하는 강학(講學) 공간과 퇴계를 배향 인물로 하는 제향 공간으로 분할된다. 여기에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독특한 서원의 공간 기호 체계를 나타내게 되고 전방과 후방은 자오선을 축으로 한 남/북 이항 코드의 의미 작용을 띠게 된다. 이 같은 이항 코드의 공간 분절은 역(易)의 기호 체계를 토대로 한 것이며 그곳에서 파생된 천지인의 삼원 구조와 오행(五行: 五方)의 다섯 방향성으로 세분화된다.

도산서원의 집터가 원래 산기슭에 있는 농부의 밭으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산과 들이 만나는 접경 지대에 있는 중간 항intermediate zone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로 높이 솟은 산세를 천(天)이라고 한다면 냇물이 흐르는 평지의 벌판은 야세(野勢)로서 지(地)이다. 그렇다면 그 산기슭의 중간 항은 인(人)에 속하는 것이다.

천지인의 코드를 역의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마디로 산도 들도 산기슭에 위치한 서원 공간은 중용의 유교 문화나 문질彬彬(文質彬彬)의 유교적 인간을 공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번거로운 속세의 유혹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덕을 쌓으려는 유교적 은둔처는 속세를 완전히 떠나 심산 속에 숨는 사찰과는 다르다. 자연과 벗하며 은거하면서도 한옆으로는 후학

들을 가르치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를 맞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동시에 서원 공간은 수려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한편에는 서책들이 쌓여 있다. 문(文)은 인공적 artificial인 것으로 반자연적인 것이며 질(質)은 자연적 natural인 것이어서 반문화적인 것이다. 유교의 이념은 도가적인 자연 그대로의 상태도 아니요 목가적인 인위적인 세계도 아니다. 문질빈빈은 문과 질이 한데 어울려 양극의 중간 항(intermediate zone)에 속해 있는 삼항적(三項的)인 새로운 공간 체계를 만들어낸다.

천지를 매개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중간 항으로서의 인간은 바로 완성된 인간인 군자의 특성인 문질빈빈인 것이다. 도산서원은 산속 깊이 들어가는 사찰도 아니며 동시에 자연 풍광과 단절되어 있는 여항(閭巷)이나 향교와도 다르다. 배우지 않으면 용(勇)은 광(狂)이 되고 인(仁)은 우(愚)가 된다. 유교에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자연 상태의 동물적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본질을 잃고 문(文)의 상태로만 흐르면 교언영색(巧言令色)의 경우처럼 진실성을 상실하고 가식의 상태에 빠진다. 자연과 문명의 중용의 거리 산기슭의 서원은 성/속 문/질 개/폐를 매개하거나 융합하는 공간적 기호로서 이항 대립을 탈코드화하여 이항 융합의 복합 기호를 생성해낸다.

동시에 서원 자체의 공간 구성만을 놓고 볼 때 그 공간 기호 체계는 자오선의 남북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방의 남쪽에는 배우는 강당을 후방의 북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묘당으로 양분된다. 이 같은 서원의 공간 체계를 오행도설이나 12간지로 보여주면 <그림 3>과 같은 도형이 된다.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도산서당에 여러 건축물이 부가되어 규모가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 기호 체계가 수평 축에서 수직 축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본래 도산서당은 도산서당 농운정사 그리고 불역낙재가 동서 수평 축으로 나란히 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런데 퇴계 사후에 들어선 서원
건축들은 그 뒤편으로 묘당을 위
시하여 강당 등을 지어 남북 축
으로 공간 구조가 변화된다. 그
의미 작용 signification에 있어서
도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으
로 생자의 공간이 사자의 공간으
로 배움의 공간이 제례의 공간으
로 새로운 의미가 부가된다. 이
러한 공간의 의미 변화들은 공간
의 단 기호 monosemic적 체계가

〈그림 3〉

복합 기호 polysemic의 체계로 전이된 현상을 보인다. 결국 서원의 전학후
묘(前學後廟)의 공간 체계는 전(前)=남(南), 후(後)=북(北)과 남(南)=
생(生), 북(北)=사(死)의 패러다임으로 옮겨진다.

서원의 북묘는 앞에서 본 도형에서 보듯이 오행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
로 북은 사자의 혼백이 합쳐지는 것으로 북망산의 경우처럼 사자의 땅인
묘지와 묘소가 있는 곳이다. 공간 기호로 보면 인간의 혼백은 천과 지로
분할된다. 혼은 가볍고 상승하는 것으로 천(天)에 속해 있고 백(魄)은 무
겁고 하강하는 것으로 지(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혼백이 분리되
어 혼비백산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것들이 다시 결합하는 지점이 북이다.
이와 반대 방향의 남쪽은 사씨 남정기의 남방(南方)의 공간 상징(象徵)처
럼 생(生)의 장소가 있는 곳이다. 서원과 주변의 총체적인 공간에서 보면
남으로 갈수록 세속적·개방적 공간이 되고 북방 축으로 갈수록 탈속적·
폐쇄적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중간의 반개방 반폐쇄 반생 반사의 공간에
서원이 위치한다. 동시에 서원의 경우 남북 축의 syntagmatic한 연결에서
동재 서재의 경우처럼 동서 축의 paradigmatic한 공간의 병렬 구조가 형성
된다. 그러므로 강당과 묘소의 공간적 대응은 책을 두는 서고인 광명실과

제기(祭器)를 간수하는 제기고(祭器庫)로 공간 대비를 이룬다.

남북 동서 대칭의 이 같은 서원의 공간 기호 체계를 통해서 도산서원을 읽어보면 현재 22개의 건축물과 그것을 에워싸거나 연결하는 문과 담장이 그리고 주변의 뜰과 조경 그리고 각종 수목들을 정밀하게 읽어내려갈 수가 있다. 즉 도산서원을 모델로 하여 일반 서원의 공간 기호의 코드 해석과 코드 생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역의 기호 체계를 원용하여 동양 전체의 문화권을 분석하는 공간 기호론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호가 실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임을 밝혀내면서도 그 명제를 한 발 더 뛰어넘어 이항 대립이 아니라 이항 융합의 매개항과 이항 코드의 탈코드에 의해 창조되는 그레이 존을 탐색하는 새로운 기호학의 정립을 이룩할 수가 있다. 이미 토폴로프와 같은 기호학자들이 밝히려고 한 것처럼 벽화의 기호들처럼 똑같은 기호라도 그것이 좌냐 우냐 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달리 나타나듯이 공간 기호론은 소쉬르 이후 언어를 모델로 한 지금까지의 기호론에 새로운 시야와 연구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도산서원의 20여 개의 각기 독립된 건축물들을 개별적인 실체로서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공간적 의미망을 통해서 읽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타 텍스트의 역할을 하는 (언어 텍스트에 있어서의 제목과도 같은) 열정(冽井)과 몽천(蒙泉)의 두 우물에 대한 이항 코드를 역의 기호로 읽고자 하는 것이다.

4. 역(易)의 기호로 본 열정(冽井)과 몽천(蒙泉)

도산서원에 들어가는 마당에 누구에게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열정(冽井)이라고 부르는 우물이다. 문자 텍스트로 치자면 제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 작용을 한다. 실제로 퇴계가 도산서당을 짓기 이전부터 존재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은 도산서원의 터가 어떤 의미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원초적인 기호로서 작용한다. 퇴계 자신이 이 우물에 매료되어 몸소 명명을 하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남기고 있다.

{……}

저 홀로 있어도 어찌 측은한 생각이 들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사람 여기 터 잡고 앉드려 사니
한 바가지 물로 샘과 내가 서로의 마음을 얻었네



水

風

井

(坎巽
上下)

이 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물을 향해 “여기 터 잡고 앉드려 사니”라는 대목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인의 거주 공간은 건축 이전의 ‘터’에 있고 그 ‘터’를 잡는 선택이 곧 주거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 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같은 건축 장소의 터를 의미하는 기호 체계는 역이나 오행설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언급한 것과 같다.

그런데 퇴계가 세상을 물러나 영원히 그곳에서 은거할 처소 (그림 4)의 터를 우물에 둔 열정을 역의 기호로 나타내면 바로 수풍정 (水風井)이 된다. 수풍정은 <그림 4>에서 보듯이 바람을 의미하는 손괘(巽卦) 위에 물을 의미하는 감괘(坎卦)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을 뜻하는 손괘는 목기(木氣)로서 가시적인 물질로 나타날 경우 나무를 의미한다. 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장애물을 비켜 뻗어가는 현상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고 또한 나무 줄기가 허공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 역시 바람의 속성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수풍정은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으로 곧 두레박으로 퍼올린 우물물을 의미하게 된다. 바가지나 두레박은 손괘의 나무이고 그 위의 감

괘는 그것에 담긴 우물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수풍정은 우물(井)을 뜻하는 기호가 된다. 우물물은 퍼내도 줄지 않고 계속 고이기 때문에 불변의 의미소를 지니게 된다. 또한 우물은 옮길 수가 없다.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게 되므로 그 마을과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나 우물은 그 자리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불변 부동의 우물은 삶의 뿌리이며 아무리 퍼 써도 마르지 않고 새롭게 솟아나는 학문이나 지식의 근본이 된다(篆傳曰 巽呼水而上水井 井養而不窮也 改邑不改井).

그런데 도산서원에는 이 우물과 대응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물이 또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같은 물이지만 우물물과는 그 변별성이 아주 다른 샘물인 몽천(蒙泉)이다. 이것 역시 퇴계 자신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정우당(淨友堂)의 연못 동쪽 계곡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몽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층위에서 열정의 그 우물과 대칭 관계에 있다. 역(易)의 괘(記號) 역시 수풍정의 구조와는 정반대로 감(수)이 아래로 손(풍=목)이 위로 올라와 있는 풍수환(風水渙)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風

水

渙

巽(上)
坎(下)

· 풍수환의 환(渙)은 우물 정(井)과는 대조적으로 흩어지고 [散] 떠나는[離]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풍수환은 물 위로 바람이 불며 사방으로 흩어지며 번져가는 형상이거나 혹은 바람은 목기와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 물 위에 뜬 배가 큰 냇물을 건너 멀리 가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풍수환의 그 샘물은 “물밑에 있는 나무인 두레박이나 바가지의 물”처럼 간혀 있는 물과는 달리 끝없이 흐르고 흩어지며 개방적인 넓은 공간으로 건너가는 물이다. (篆傳曰 一利涉大川 乘木有功也. 경기도 利川의 지명은 바로 이 역의 전전 이십대천을 따서 완건이가 붙여준 것이라고 한다.)

샘물은 우물물과는 달리 넘쳐서 흘러 골짜기에서 냇물로 흘러 대천으로 이어진다. 흩어지고 확산하는 물 혹은 그 대천을 건너가 멀리 가는 배이다. 같은 물인데도 수풍정의 우물물과 풍수환의 샘물은 이렇게 다르다. 열

정의 우물물이 선비가 세상을 떠나 한곳에 간혀 학덕의 근본을 닦고 있는 것이라면 몽천은 선비가 자신의 학덕을 혹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널리 그 학덕을 확산하는 일과 같다.

반드시 수풍정의 열정과 풍수환의 몽천이 학문의 보존과 전파라는 대칭적인 공간적 의미 작용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칭적인 의미의 병렬 구조를 지니고 있는 유교 문화의 특성 또는 좁게는 도산서원의 다음과 같은 이항 대립과 그 모순을 통합 조화시키려는 중용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풍정: 不動 不變 近 集

풍수환: 動 變 遠 散

도산서당에서 퇴계가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다음의 글을 읽어보면 그 삶의 공간이 수풍정의 열정과 풍수환의 몽천의 두 대립 기호가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고 융합하여 양의적인 혹은 중용의 공간을 이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1) 때로는 육신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편하여지며, 몸과 마음이 맑게 개어나서, 세상을 돌아봄에 감개무량하기 이를 데 없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책을 덮고 지팡이를 이끌고 방을 나서서 '현'(암서현)에 이르고, '당'(정우당)을 구경하고, '단'(마당)을 거닐고 '사'(절우사)를 찾고, 밭에 나가 약초를 심고, 숲을 헤쳐 꽃도 따고, 혹은 돌 위에 앉아 샘물도 마셔보고, '대'(천연대, 운영대)에 올라 구름도 바라보고, 혹은 물가 바위(반타석)에 기대 고기 노는 것도 구경하고, 물 위에 배를 띄우고 앉아 갈매기도 희롱하여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눈길이가 닿는 곳마다 살펴보고, 좋은 경치를 만나 흥에 취하여 노닐다가 돌아오면,

2) 집은 적막하게 가라앉아 있고, 책은 벽에 가득하여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이미 알아낸 것은 따르고 새로 찾은 것은 닦아서 마음으로 깨우침기를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밥 먹는 것까지 잊을 정도이다.

설명을 할 것도 없이 1)은 풍수환의 몽천 패러다임이며 2)는 수풍정의 열정 패러다임을 나타낸다. 1)은 지팡이로 유도되는 공간으로 자연의 소묘를 즐기는 물 위의 바람 혹은 나무처럼 확산 개방되는 공간이라면 2)는 방 안에서 책이 이끌어가는 내밀한 칩거의 공간이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공간이 이 글에서는 다 같이 대립되어 있거나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질빈빈의 경우처럼 대립되는 공간 체계가 도산서원의 공간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합일체로 그려진다. 안과 바깥의 대립이 탈구축되어 우물물처럼 혹은 두레박이나 바가지로 퍼낸 물과도 같은 — 집, 벽, 책상, 책으로 끝없이 웅축되고 고여 있는 선비의 닫힌 방은 현 당 대로 이어지면서 구름 배 갈매기같이 끝없이 확산되는 공간의 순례parcour가 서로 순환하고 복합해가면서 도산서원의 반개방 반폐쇄의 독특한 유교적 선비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열정과 몽천의 서로 모순하는 두 공간 기호가 융합하여 도산서원의 공간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퇴계는 신선이 되지도 않았고 관리도 되지 않았다. 닫힌 한곳에 파묻혀 살면서도 자신이 닦은 학덕을 혹은 자신이 기른 제자를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 수풍정과 풍수환은 열정과 몽천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로서만이 아니라 도산서원과 모든 서원 그리고 모든 유교의 선비 정신을 해독하는 공간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다.

Decoding Space Semiotics in Dosan Seowon

O-Ryoung Lee

Basanimsu is the key concept for the architecture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The concept is a kind of *pungsupeng-sui* in Chinese theory. According to the concept, if there is a mountain at the back and a water in front, the site is a good place to build a house. As the concept shows, space is more important than a house itself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In other words, architecture can achieve its significance not by substance, or houses but by space related to the houses. Therefore understand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requires semiotic approach that needs relationalism rather than substantivism.

The space code of *Basanimsu* does not merely present material confrontation between mountains and waters. It also presents the complex binary code of front vs back, verticality vs horizontality, and mobility vs immobility.

Multiple and systematic code of living space can be seen in *Seowon* which served as Confucian shrine and academy in Joseon Dynasty(1392~1910). The layout of the buildings in *Seowon* and its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re good indicators to understand the space code of the Confucian culture in Joseon Dynasty.

Among many *Seowon*, *Dosan Seowon* is the best model for finding the code. It was built by Teogye who is one of the greatest Neo-Confucian scholars in Korean history. His academic achievements and constructing the buildings are the text of Neo-Confucian discourse, and the space and natural environment and exact site for the buildings is the meta-text.

Therefore, significance of Confucian culture in Joseon Dynasty can be decoded by revealing signification between significant such as the buildings and their layout in *Dosan Seowon*.

Dosan Seowon can be divided into seodang (academic space) and sadang (enshrining space). Teogye built the academy and, after his death, his disciples built a shrine in memory of Teogye. Examining the layout and structure of *Dosan Seowon* leads to the fact that the space code of the *Seowon* consists of binary code of signifier and signified like language.

With *Dosan Seowon* as the model, the codes of other *Seowon*, and finally the code of the whole Eastern culture can be deciphered. And new semiotics can be established through binary fusion instead of binary opposition, and through newly created code beyond binary code. Space semiotics is expected to offer a new view and a new model for semiotics which has been dominated by the language model of Saussure.

열쇠어: 공간 기호론, 공간적 코드, 이항 대립, 복합 기호, 역의 기호.